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남 순 현[†]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 기혼자녀 250명의 3세대 가족의 세대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Bowen(1978)은 여러 세대에 걸친 병리적인 세대과정을 토대로 세대과정의 건강한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세대간 전수과정은 건강한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동시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분화는 핵가족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원 가족과의 상호작용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부모 하위체계는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부와 기혼자녀의 하위체계와 모와 기혼자녀의 하위체계에서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전수될 때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세대에서 3세대로 전수될 때 각 하위체계에 서 직접 매개효과와 간접 매개효과를 각각 보였다.

주요어 : 세대간 전수, 가족분화, 불안, 행복감, 3세대 가족,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 순 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FAX: 02-3290-2060 / E-mail: shnam@korea.ac.kr

세대간 전수

한 가족의 세대는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부터 형성된다. 세대(generation)란 부모와 자녀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리이며, 세대과정(generation process)을 통하여 그 가족의 생활양식이 결정된다(Burr, Day & Bahr, 1993). 한 가족의 독특한 전통, 방식, 가치관, 감정 및 신화 등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개개 가족의 유산이 되고,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은 이러한 세대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성장한다. 이는 세대과정이란 가족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측면으로 가족 이외의 제반 사회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개인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가족의 영향이 개인에게 미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과정은 영속적이다. 둘째, 세대 과정은 변화되기 어렵다. 셋째, 한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은 이전 세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Burr, Day & Bahr, 1993). 이전 세대에 대한 의존성이란 자녀가 지지의 원천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Cohler & Grunebaum, 1981). 이는 초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 의지하게 되고 서로간에 상호 교류가 잦아진다.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은 세대간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며, 세대간의 상호 자원과 봉사물 교환하게 한다(Cohler & Grunebaum, 1981). 이처럼 세대간의 상호의존성이야말로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통합으로서 3세대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유이다(Burgess, 1926; Cohler & Grunebaum, 1981 재인용).

Burr 등(1993)은 세대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고 보았다. 가족구성원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방식 및 구성원들 상호간의 친근감이나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건강한 상호작용방식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구속하지 않는 결속력, 강압적이지 않은 친밀감 및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병리적인 상호작용방식은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한 성인 자녀의 결혼파괴, 아동학대 및 정신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세대간 전수(generational transmission)에 관한 선행 연구들(Glenn & Kramer, 1987; Milner & Wimberly, 1980; Kerr & Bowen, 1988)은 주로 결혼관계의 질,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과 정신질환과 같이 병리적인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건강한 세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Bowen(1978)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과 같은 병리적인 측면은 이전 세대들이 현세대로 전수한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보았다. 즉 원 가족(family of origin)과 분리되지 않은 가족자아집합체(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는 개인에게 만성적인 불안을 초래한다. 또한 원 가족과의 자율적인 자기분화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부모는 자신의 부적합성이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자녀에게 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가족투사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이란 어떤 세대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기분화에 의해 야기된 불안을 다음 세대의 회생양과 융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이가 가족투사과정의 회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분열병이나 자폐증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투사과정은 자녀에게 병리적인 생활 방식을 전수한다. 그러나 여러 세대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병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건강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Burr, Day & Bahr, 1993). 다시 말해서, 가족 내 정서적 거리와 강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가족투사과정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 이외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한다.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핵가족체제 내 구성원들간에 연결성과 분리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

지하려는 거리규제방식인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의 개념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예언하였고, 부모의 가족분화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족분화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가 핵가족 내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 가족과의 상호작용도 예언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Bowen이 주장한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가 핵가족의 중심 정서로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구조화된 유형으로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분화수준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구조화된 유형으로 전수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현 세대나 부모 세대의 정서적 힘이 후대의 가족기능을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3세대 이상의 가족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러 세대에 걸친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생발달에 따른 가족구성원들의 사회화과정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방법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년학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3세대 가족연구들은 첫째, 연구대상이 고부관계와 같이 3세대 가족 내 특정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연구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고부관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셋째,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인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민요, 속담 등에서 나타난 고부관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한남제, 1989). 뿐만 아니라 세대간 전수 과정에 대한 3세대 이상의 가족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성인 기혼자녀의 3세대에 걸친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세대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된 원 가족에 대한 핵가족의 정서적 융합, 즉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는 핵가족 안에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장애크

초래한다. Bowen(1978)은 핵가족의 정서과정에서 원가족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한 개인의 정서장애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의 결과, 즉 누적된 불안의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Bowen은 가족 내 증상을 보이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분화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족치료의 주요 목표라고 하였다. 즉 건강한 개인이란 불안수준이 낮고, 원 가족으로부터 자율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진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Bowen은 불안을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정서장애를 야기하는 핵심 정서로 보았다. 가족구성원들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불안은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거리감의 정도를 조절한다(Friedman, 1991). 가족 내 한 개인이 구성원들로부터 과도한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한다면, 개인의 불안은 가족에 대한 거부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 친밀감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가족 내 한 개인이 구성원들로부터 과도한 친밀감을 경험한다면, 개인의 불안은 가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 가족구성원들간의 과도한 친밀감에서 야기되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은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폭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핵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원 가족과 과도하게 일체감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혹은 분리되고자 하는 적대감을 갖게 될 때 개인은 불안을 야기한다. 즉 불안은 여러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이 병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전수된다(Gurman & Kniskern, 1991).

반면에 Anderson과 Sabarelli(1992)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에서 구성원들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즉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자율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족 내 구성원들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핵가족체계 내 구성원들간의 수평적인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원 가족과의 수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정서적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은 중요하다.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구성원들간의 병리적인 세대간 전수과정이 특정 개인에게 만성적 불안을 초래하는 것과 달리, 건강한 세대간 전수과정은 개인에게 가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가족의 구성원들이 원 가족의 구성원들과 수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세대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서로는 Bowen이 주장한 만성적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이외에 개인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로서 행복감이 파생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복감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환희 및 만족감으로 개인이 만족스런 관계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정서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 즉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Lazarus, 1991). 만족스런 관계에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정서로는 기쁨, 환희, 즐거움, 유쾌함, 자긍심, 사랑과 애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행복감은 이러한 감정들을 포괄하는 가장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핵가족의 구성원들이 원 가족과 정서적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구성원들은 친밀감과 자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불안수준이 낮고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원 가족과 과도하게 일체감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적대감으로 친밀감과 자율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고, 심한 불안을 느끼며 행복감이 낮을 것이다.

Bowen은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가 핵가족 내 증상을 지닌 개인에게서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된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반복은 불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과정의 병리적인 측면과 건강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가족 내 구성원들이 원 가족과의 병리적인 상호작용에서 야기되는 불안과 동시에 건강한 상호작용에서 초래되는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기혼자녀의 3세대에 걸친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분화가 구조화된 유형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세대간 전수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가족분화가 원 가족과의 수직적인 정서적 거리규제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 가족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외)조부모 가족, 부모 가족, 기혼자녀 가족의 부부하위체계만을 표집하여 각 세대의 핵가족이 원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색하였다. 즉 각 세대별로 원 가족의 부모 하위체계와 핵가족의 부부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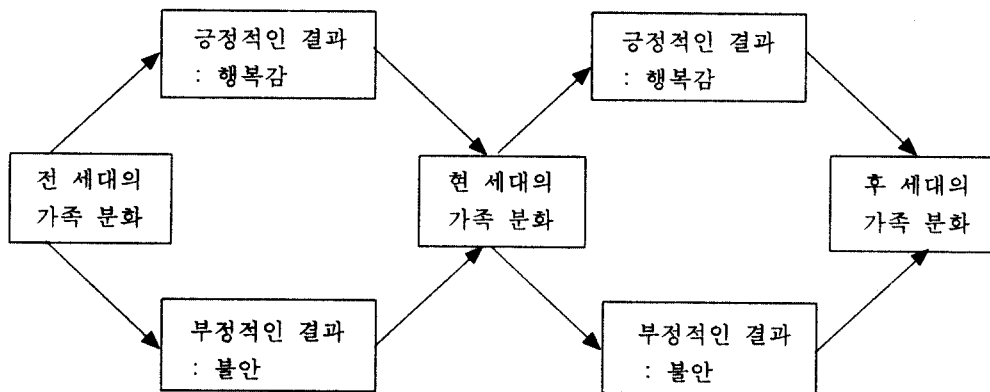


그림 1. 3 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 관한 연구가설 모델

체계간의 상호작용방식, 원 가족의 부와 핵가족의 기혼자녀간의 상호작용방식, 및 원 가족의 모와 기혼자녀간의 상호작용방식으로 나누어 각 하위체계별 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대과정의 건강한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지 부가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3세대 가족의 정서적 역동성이 전수되는 과정과 세대과정의 긍정적 경로 및 부정적 경로에 대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자녀 250명(남자 129명, 여자 121명)과 그의 부모 각각 250명이다. 설문지는 2000년 9월 6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서울 시내에 있는 두 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700명의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연구자는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설문에 대한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결혼한 형제·자매와 그의 부모 혹은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에게 3개의 설문지가 1세트인 설문을 실시해 오도록 하였다. 배포된 700세트의 설문 중 317세트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317세트의 설문지 중에서 연구목적에 잘못 이해하였거나 무응답이 많고 불성실한 설문지 67세트를 제외하고 250세트의 자료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기혼 아들의 평균연령은 28.25세(SD=9.88)로 20-50세의 연령범위를 보였으며, 기혼 딸의 평균연령은 28.61세(SD=8.83)로 21-56세의 연령범위를 보였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54.59세(SD=16.14)로 43-79세의 연령범위를,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51.84세(SD=14.52)로 46-87세의 연령범위를 보였다. 기혼자녀의 배우자선

택은 중매혼이 24명(9.6%), 연애혼이 186명(74.4%), 절충혼이 37명(14.8%), 기타 2명(0.8%)이었고, 어머니의 배우자선택은 중매혼이 142명(56.8%), 연애혼이 62명(24.8%), 절충혼이 46명(18.4%)이었고, 아버지의 배우자선택은 중매혼이 138명(55.2%), 연애혼이 59명(23.6%), 절충혼이 51명(20.4%), 기타 1명(0.4%)이었다. 기혼자녀의 결혼상태는 초혼이 245명(98.0%), 재혼이 2명(0.8%), 이혼이 2명(0.8%)이었고, 부모의 결혼상태는 초혼이 242명(96.8%), 재혼이 7명(2.8%), 이혼이 1명(0.4%)이었다.

측정도구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Anderson과 Sabarelli(1992)가 개발한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11개의 순환식 문항으로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는 5에서 55이다. 본 연구에서 기혼자녀와 그의 부모들은 각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등 대상만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된 문항에 각각 응답해야 한다.

한 개인의 부모의 가족분화 점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다. 각 하위체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한 것은 이자간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에 30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 30점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이 각각 50점과 10점을 받았을 때, 각 총점을 더하면 A와 B의 부모는 모두 60점의 가족분화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서 30점을 받은 사람은 10점을 받은 사람보다 가족분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하면 A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900점이고, B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500점으로 가족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순현과 한성열(1999)의 연구에서 가족분화척도는 6개 각 하위체계에서 각각 $\alpha=.65$, $\alpha=.72$, $\alpha=.69$, $\alpha=.68$, $\alpha=.73$, $\alpha=.77$ 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특성불안척도(Trait Anxiety Inventory, TAI).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개인의 불안수준을 알기 위해서 Spielberger(1970)의 상태-특성불안척도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야기되는 만성적 불안이 개인의 현재 상태 불안을 나타내는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이고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는 20에서 80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불안척도는 김청택(1978)이 번안하고, 이영자(1996)가 표준화한 것으로 본 연구의 각 하위체계에서 내적 신뢰도는 각각 $\alpha=.74$, $\alpha=.71$, $\alpha=.66$ 이었다.

행복감척도(Affectometer 2). Kammann과 Flett(1983)가 개발한 행복감척도는 최근에 경험한 일반적인 행복감을 묻는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총 40문항이다. Kammann과 Flett(1983)의 행복감척도는 역번역

과정(Warwick & Lininger, 1975)을 통하여 본래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 하위체계에서 각각 $\alpha=.62$, $\alpha=.72$, $\alpha=.77$ 이었다.

연구결과

3 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전수

각 하위체계에서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Amos 3.61(Arbuckle, 1997)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각 하위체계의 경로 분석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것이다.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경로별 경로계수 추정치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1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의 전수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일반 부합치(GFI)가 .9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부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일반 부합치(GFI), 조정 부합치(AGFI), 비교부합치(CFI)가 .9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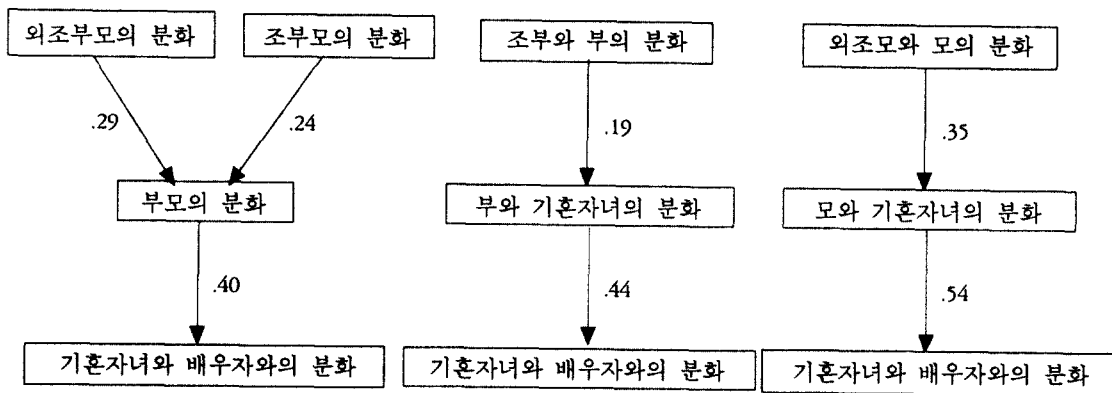


그림 2. 부모, 부계, 모계의 각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표 1. 각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하위체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부모	추 정 치	.929	.763	21001.321	.226	.711
부계	추 정 치	.988	.930	8483.693	.118	.946
모계	추 정 치	.993	.955	5648.712	.086	.985

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일반 부합치(GFI), 조정 부합치(AGFI), 비교부합치(CFI)가 .9 이상이고 원소간 근접오차(RMSEA)가 .08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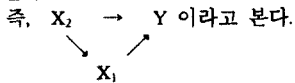
각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되는 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세대와 2세대간의 가족분화수준이 전수될 때,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¹⁾ 첫째, 2세대의 가족분화수준에 대해서 1세대의 가족분화수준, 불안, 및 행복감이 모두 유

의한 설명량을 가져야 한다. 둘째, 불안과 행복감에 대해서 1세대 가족분화수준이 유의한 설명량을 가져야 한다. 셋째, 2세대의 가족분화수준에 대해서 1세대의 가족분화수준이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통계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변인간의 설명량의 차이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

만일 위의 세 조건 중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통계적 절차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²⁾을 실시하여야 한다. 먼저 1세대의 가족분화수준과 불안이나 행복감이 2세대의 가족분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지를 고려한다. 동시에 두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매개효과 검증은 불안과 행복감이 2세대의 가족분화수준에 미치는 설명량(R_2^2)을 1세대의 가족분화수준, 불안, 및 행복감이 동시에 2세대의 가족분화수준에 미치는 설명량(R_3^2)에서 뺀 차이 값이 유의한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2세대와 3세대간의 가족분화수준이 전수될 때,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1)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X_1 을 변인 X_2 가 Y 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변인(mediator)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박광배, 1990).
 조건 1. $Y=B_1X_1+C$ 의 R^2 과 $Y=B_2X_2+C$ 의 R^2 이 모두 유의할 것.
 조건 2. $Y=B_3X_2+C$ 의 R^2 이 유의할 것.
 조건 3. $Y=B_1X_1+B_2X_2+C$ 와 $Y=B_1X_1+C$ 의 R^2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
 조건 1, 2를 만족시킨다는 전체 하에 조건 3이 만족되는 경우, 즉 두 모델의 R^2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변인 X_1 이 변인 Y 에 대한 영향을 모두 매개한다고 본다. 즉 세 변인간의 관계는 $X_2 \rightarrow X_1 \rightarrow Y$ 이라고 본다.
 그러나, 두 모델의 R^2 차이가 유의한 경우라도 매개효과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관계로 이루어진 세 변인들은 X_2 의 직접효과와 X_1 의 매개작용을 통한 간접효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 2) R^2 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박광배, 1990).

$$F = \frac{(R_{y,12..k_1^2} - R_{y,12..k_2^2}) / k_1}{(1 - R_{y,12..k_1^2}) / (N - k_1 - k_2 - 1)}$$

여기서 $R_{y,12..k_1^2}$ 은 Y (종속변인)와 k_1 (모든 독립변인)의 중다상관자승이며, $R_{y,12..k_2^2}$ 은 Y 와 k_2 (직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중다상관자승이다. 또한 k_1 과 k_2 는 각 상황의 독립변인 수를 의미하며, N 은 전체 사례수를 나타낸다.

부모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검증

먼저, 부모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은 부모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 모델을 경로분석한 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모의 불안에 회귀한 결과,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모의 불안 변량을 15.6% 설명하였다, $\beta = -.40, F(1, 248) = 45.75, p < .01$.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모의 행복감에 회귀한 결과,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모의 행복감 변량을 25.5% 설명하였다, $\beta = .51, F(1, 248) = 84.73, p < .01$. 그리고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부의 불안에 회귀한 결과,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부의 불안 변량을 14.4% 설명하였다, $\beta = -.38, F(1, 248) = 41.72, p < .01$.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부의 행복감에 회귀한 결과,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의 행복감 변량을 22.7%를 설명하였다, $\beta = .48, F(1, 248) = 72.66, p < .01$.

모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모의 불안은 부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9.2% 설명하였다, $\beta = -.30, F(1, 248) = 25.11, p < .01$. 모의 행복감은 부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16.5% 설명하였다, $\beta = .41, F(1, 248) = 49.06, p < .01$. 그리고 부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부의 불안은 부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10.5% 설명하였다, $\beta = -.33, F(1, 248) = 29.23, p < .01$. 부의 행복감은 부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16.5% 설명하였다, $\beta = .35, F(1, 248) = 35.40, p < .01$.

선행변인들과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불안에 중다회귀한 결과,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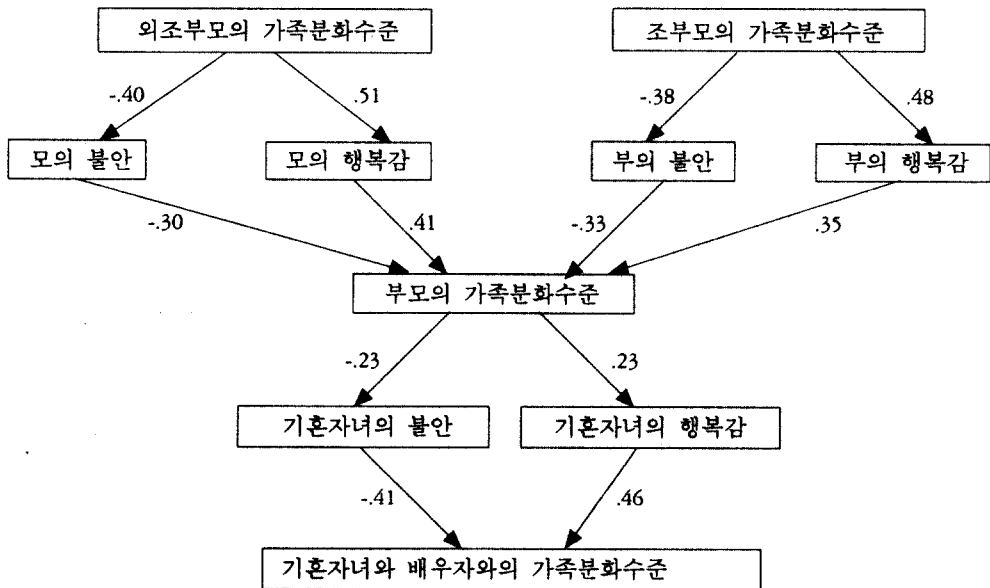


그림 3. 부모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녀의 불안 변량을 24% 설명하였다, $\beta = -.23$, $F(7, 242) = 10.91$, $p < .01$. 선행변인들과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중다회귀한 결과,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의 행복감 변량을 25.8% 설명하였다, $\beta = .23$, $F(7, 242) = 12.01$, $p < .01$.

선행변인들과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기혼자녀의 불안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0.5% 설명하였다, $\beta = -.41$, $F(7, 242) = 15.17$, $p < .01$. 기혼자녀의 행복감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3.7% 설명하였다, $\beta = .46$, $F(7, 242) = 17.54$, $p < .01$.

그림 3에서 중다회귀한 결과는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부모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조건 1과 2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건 3의 두 회귀식에서 나

타난 설명변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0.0008$, $F = 0.0004$, ns . 그리고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0.00006$, $F = 0.0004$, ns . 또한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조건 1과 2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건 3의 두 회귀식에서 나타난 설명변량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0.0020$, $F = 0.0019$, ns .

부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검증

부계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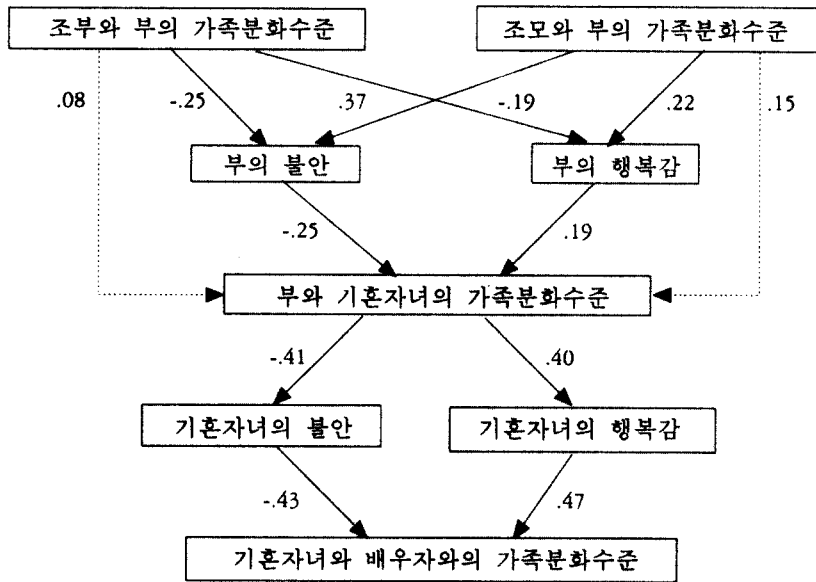


그림 4. 부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그림 4는 부계의 가족분화수준, 불안 및 행복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모델을 경로분석한 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을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eta=.08$, $\beta=.15$, *ns*.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을 부의 불안에 중다회귀한 결과,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불안에 각각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부의 불안 변량을 16% 설명하였다, $\beta=-.25$, $\beta=-.19$, $F(2, 247)=23.78$, $p<.05$.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을 부의 행복감에 중다회귀한 결과, 조부와 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행복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의 행복감 변량을 29.4% 설명하였다, $\beta=.37$, $\beta=.22$, $F(2, 247)=51.34$, $p<.01$.

부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부의 불안은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6.3% 설명하였다, $\beta=-.25$, $F(1, 248)=16.54$, $p<.01$. 부의 행복감은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4% 설명하였다, $\beta=.19$, $F(1, 248)=8.83$, $p<.01$.

선행변인들과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불안에 중다회귀한 결과,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의 불안 변량을 29% 설명하였다, $\beta=-.41$, $F(5, 244)=19.95$, $p<.01$. 선행변인들과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중다회귀한 결과,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의 행복감 변량을 27.5% 설명하였다, $\beta=.40$, $F(5, 244)=18.48$, $p<.01$.

선행변인들과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을 기혼자

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각각 회귀한 결과, 기혼자녀의 불안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0% 설명하였다, $\beta=-.43$, $F(5, 244)=20.92$, $p<.01$. 기혼자녀의 행복감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26.8% 설명하였다, $\beta=.47$, $F(5, 244)=17.85$, $p<.01$.

그림 4에서 중다회귀한 결과는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이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이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부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불안과 행복감이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 1과 2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건 3의 두 회귀식에서 나타난 설명변량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0.0016$, $F=0.0014$, *ns*.

모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검증

모계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모계의 가족분화수준, 불안 및 행복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모델을 경로분석한 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중다회귀한 결과,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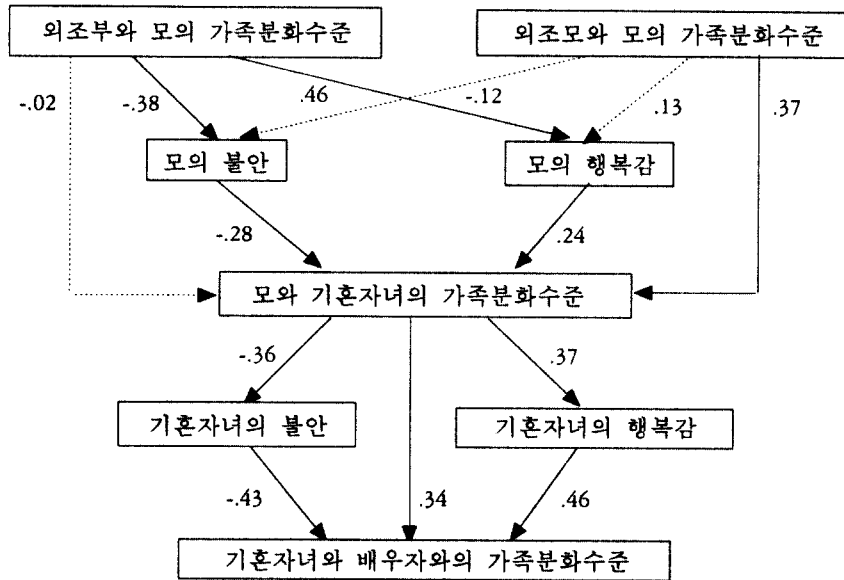


그림 5. 모계의 가족분화수준 전수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beta = -.02$, *ns*,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만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beta = .37$. 이 중다회귀식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12.4% 설명하였다, $F(2, 247) = 17.54$, $p < .01$.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모의 불안에 중다회귀한 결과,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모의 불안 변량을 21.9% 설명하였다, $\beta = -.38$, $F(2, 247) = 34.57$, $p < .01$. 그러나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불안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eta = -.12$, *ns*.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을 모의 행복감에 중다회귀한 결과,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모의 행복감 변량을 30.6% 설명하였다, $\beta = .46$, $F(2, 247) = 34.57$, $p < .01$. 그러나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행복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eta = .13$, *ns*.

모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모의 불안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8.0% 설명하였다, $\beta = -.28$, $F(1, 248) = 21.50$, $p < .01$. 모의 행복감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5.7% 설명하였다, $\beta = .24$, $F(1, 248) = 14.89$, $p < .01$.

선행변인들과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불안에 중다회귀한 결과,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불안에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의 불안 변량을 27.7% 설명하였다, $\beta = -.36$, $F(5, 244) = 18.66$, $p < .01$. 선행변인들과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을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중다회귀한 결과,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의 행복감 변량을 32.4% 설명하였다, $\beta = .37$, $F(5, 244) = 23.41$, $p < .01$.

선행변인들과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을 각각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기혼자녀의 불안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29.2% 설명하였다, $\beta = -.43$, $F(5, 244)=20.13$, $p < .01$. 기혼자녀의 행복감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0.8% 설명하였다, $\beta = .46$, $F(5, 244)=21.70$, $p < .01$.

모든 선행변인들을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회귀한 결과,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기혼자녀의 행복감은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고,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 변량을 33.1% 설명하였다, $\beta = .34$, $\beta = .22$, $F(7, 242)=24.23$, $p < .01$.

그림 5에서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모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검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검증은 조건 2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조건 1과 2를 만족시킴으로써 조건 3의 설명변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혼자녀의 불안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0.0042$, ns , 기혼자녀의 행복감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직접 효과를 보일 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1$, $p < .01$.

논 의

본 연구는 3세대 가족의 세대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Glenn & Kramer, 1987; Milner & Wimberly, 1980; Kerr & Bowen, 1988)이 세대과정의 병리적인 측면을 토대로 건강한 세대과정을 강조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정서과정의 병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토대로 연구가설 모델을 검증하였다.

첫째, 3세대에 걸친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분화가 자기분화와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정서과정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구조화된 유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분화수준은 핵가족체계 내 구성원들간의 수평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설명해 줄뿐만 아니라 핵가족의 구성원이 된 가족과 수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도 예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 세대의 가족분화수준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는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이 원 가족의 영향뿐만 아니라 3세대 이전의 가족분화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핵가족의 정서적 역동성은 과거 여러 세대의 정서적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되는 긍정적 경로와 부정적 경로에서 각각 행복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 하위체계에서 1세대(G1)와 2세대(G2)의 경우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세대(G2)와 3세대(G3)의 경우에도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하위체계에서 (외)조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그리고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불안과 행복감이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은 건강한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이 동시에 여러 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계의 가족분화수준은 1세대(G1)와 2세대(G2)에서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의 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불안과 행복감이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은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조부모와 부의 가족분화수준이 부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부의 행복감과 불안이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2세대(G2)와 3세대(G3)의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계의 가족분화수준은 1세대(G1)와 2세대(G2)에서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될 때,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의 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쳤지만, 외조부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모의 불안과 행복감이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쳤지만 매개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외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한편 2세대(G2)와 3세대(G3)의 경우에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불안에 의해서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전수되었고, 모와 기혼자녀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행복감에 의해서 간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기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가족분화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세대간 가족분화수준의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정도의 차이를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 하위체계(외조부모->모의 불안과 행복감, $t=2.17, p<.05$; 모의 불안과 행복감->부모, $t=1.89, ns$; 조부모->부의 불안과 행복감, $t=2.66, p<.05$; 부의 불안과 행복감->부모, $t=0.44, ns$; 부모->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 $t=0.42, ns$;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기혼자녀와 배우자, $t=0.69, ns$)와 부계(부와 기혼자녀->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 $t=0.33, ns$; 기혼자녀의 불안과 행복감->기혼자녀와 배우자, $t=0.80, ns$)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하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족분화수준이 전수될 때, 핵가족의 구성원들이 원 가족과의 건강한 정서적 규제방식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감과 병리적인 상호작용에서 야기되는 긴장, 즉 불안과 같은 정서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분화수준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직접 전수되거나 혹은 불안이나 행복감과 같은 정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owen이 주장한 핵가족체계의 정서과정에 대한 세대간 전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Bowen은 가족 내 세대간 전수는 불안과 같은 정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세대에 걸친 미분화된 자아덩어리, 즉 만성적인 불안의 결과가 핵가족의 특정 개인에게 증상을 초래하고, 원 가족과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상호작용을 맺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족분화수준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의해서 세대간 전수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 내 세대과정은 병

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가족치료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narrative therapy)에서는 기존의 가족치료들이 병리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고 치료적 접근을 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가족의 건강한 부분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즉 가족 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가족체계의 붕괴가 초래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장점을 치료에 활용할 때 보다 효율적인 치료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세대과정의 병리적인 측면을 토대로 된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세대과정의 건강한 측면들이 우리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가족의 전통, 가치관, 신념 및 신화 등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가족에게서 보여지는 세대과정은 바람직한 것이고, 바람직한 세대과정의 전수는 핵가족의 구성원들이 원 가족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한 가족이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성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세대과정을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 이러한 세대과정을 Bowen은 가족투사과정으로, Boszormenyi-Nagy와 Sparks(1973)는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충성(invisible loyalties)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가족구성원 중 특정 개인은 원 가족과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을 시도할 수 있으나(Kerr & Bowen, 1988), 이는 핵가족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가족 내 특정한 과도기적 인물이 이전 세대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후대는 더 이상 과거 해결되지 않은 원 가족과의 갈등으로 병리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된다(Boszormenyi-

Nagy, & Sparks, 1973).

본 연구는 20대 이후 성인 기혼자녀들의 3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가족의 정서적 역동성에 관심을 갖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3세대 가족연구는 자료수집과정과 통계적 절차와 같은 방법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족연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환희, 만족감 등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 즉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족구성원들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나 혹은 원 가족과의 정서적 규제 방식에서 야기되는 긍정적 정서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후대의 정서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분화수준의 전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로서 행복감 이외에도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가족분화수준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심리적 거리조절방식으로 특히, 중년기 이후의 자녀가 노년기 부모나 이미 생존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회상을 할 때 왜곡될 수 있다. 즉 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회상은 과거 기억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특히 중년기 이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각한 자료를 분석할 때는 왜곡된 기억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모와 성인 기혼자녀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성인 기혼자녀의 연령 폭이 크다는 것이다(기혼 아들 20-50세, 기혼 딸 21-56세). 즉 성인기에 있는 자녀와 중년기에 있는 자녀가 부모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불안과 행복감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3세

대 가족을 연구할 때 세대별 표집대상의 연령층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3세대 가족연구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핵가족 내 기혼자녀들이 원 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각할 때, 현재 기혼자녀의 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기혼자녀가 현재 불안수준이 높아서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더 불안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혹은 최근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행복감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한 것인지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수행될 성인 기혼자녀의 3세대 가족연구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순현, 한성열(1999).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2, 209-222.
- 박광배(1990). 중다변인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 한남제(1989). 3대가족의 적응과 갈등. *현대한국가족*, 229-258.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Arbuckle, J. L.(1997). *Amos Users' Guide Version 3.6*. SmallWalters Corporation.
- Boszormenyi-Nagy, I., & Sparks, G. N.(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 Aronson.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ohler, B. J., & Grunebaum, H. U.(1981). *Mothers, Grandmothers, and Daughters : Personality and childcare in three-generation families*. NY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Friedman, E. 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and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Glenn, N. D., & Kramer, K. B.(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22-826.
- Gurman, A. S., & Kniskern, D. P.(199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Kammann, R., & Flett, R.(1983). Affectometer 2 : A scale to measure current level of general happines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5, 259-265.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 W. W. Norton & Company.
-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ner, J. S., & Wimberly, R. C.(1980). Prediction and explana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875-884.
- Warwick, D. P., & Lininger, C. A.(1975). *The Sample Survey : Theory and Practice*. NY : McGraw-Hill Book Company.

원고접수일 : 2001. 3.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1. 7. 25.

게재결정일 : 2001. 9. 9.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happines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n three-generation families

Nam, Soonhyeon

Han, Seongyeul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tion process with 250 married adult children's families across three generations. Bowen(1978)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ealthy generation process through researches on pathologically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multiple generations families. In contrast, the present study focused both healthy and pathological aspect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with a consider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emotions (e.g., happiness) and negative emotions (e.g., anxiety) that result from which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s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was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d that both anxiety and happiness was significantly media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At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n parental subsystem, both anxiety and happiness was influenced by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G1 and G2, G2 and G3. However, at each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n father/adult children subsystem and mother/adult children subsystem, either anxiety or happiness wasn't mediated by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G1 and G2, while at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n father/adult children subsystem, both anxiety and happiness was influenced directly and in mother/adult children subsystem was mediated indirectly by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G2 and G3.

Keywords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family differentiation, anxiety, happiness, mediating effect